

# “내 공공택지 개발 달라져야”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특정 건설사 특혜 제공여부 등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개발을 시대 여건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현 시점에서 LH가 분양한 공공택지들이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특정한 건설사에게 얼마만큼 특혜를 제공했는지 조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LH는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특정한 건설사만 배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유재산을 저가수용해 공공택지 개발 후 민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주택용지를 개발할 경우 택

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농지나 건물주에게 시가 대신 공시지가에 따라 협의나 수용을 통해 주택용지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 등에 추첨을 통해 분양한다.

분양가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시세 대비 85% 수준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

가격이 낮다 보니 분양을 하면 청약 경쟁률이 인지가 좋은 데는 수천대 1, 수만대 1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익이 많아 특정한 건설사나 기업들이 몰리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택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조공급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땅을 강제수용

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건설사에 땅과 자금을 제공해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논리 적용은 맞지 않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LH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에만도 4,400만㎡, 50조원이 넘는 공공택지를 분양했는데, 과연 이러한 택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정한 건설사에게 분양함으로써 그들에게 얼마만큼 특혜를 제공했는지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현재 2,600만㎡에 20조원이 넘는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영기자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희망원정대 발대식 2016 노스페이스 대한민국 희망원정대가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스타항공, 중국 부정부패 운항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중국 부정부패를 운항한다. 이스타항공은 6월26일부터 3개월간 B737-800기종을 통한 중국 16개 도시 부정부패를 운항한다.

운항 도시는 난창 화이안 허페이 타이위안, 우한, 푸저우 민이, 정저우, 이창, 장장, 난징 옌지, 하얼빈 창사, 난닝, 랴저우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춘 태원 무한 등 중국 9개 도시를 부정부패로 운항했으며, 8월에는 양양공항에서 '쇼이암 어린이 돕기 비행기 팔기대회'를 국내 항공사 최초로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과 강원도는 운수권을 받은 양양-광저우 / 삼양 정기 노선을 연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고, 7~8월 성수기 기간 동안 김포-양양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 브렉시트에 국제 금리 최저

국제 금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7일 3년 만기 국제 금리는 전날보다 2.7bp(1bp=0.01%) 내린 1.222%에 거래되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최저치를 기록한 전장(1.24%)보다 더 떨어진 셈이다.

1년물은 2.2bp 내린 1.270%, 5년물은 2.7bp 떨어진 1.277%를 기록했다.

장기체인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3.1bp, 3.9bp 떨어진 1.469%, 1.564%를 나타내면서 역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지난 24일에 비해서는 하락 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KR선물 김은혜 연구원은 “레벨부담과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맞물리는 가운데 추경규모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보합된 내외국 움직임”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선물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가치가 상승했다. 10년 국제선물(LKTB)은 전일대비 36bp 오른 132.76에 거래되고 있으며, 3년 국제선물(KTBF)은 13bp 오른 111.11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5년 만기 외국환평형 기금채권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은 61.13bp 기록했다. 전일보다 4.2bp 상승했지만 영국(16.97bp), 벨기에(17.45bp)에 비하면 상승폭은 낮다. 중국(68.2bp), 일본(50.7bp)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 기조여건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수치가 높았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금값은 영국의 브렉시트 발표 이후 50.4% 상승하면서 금 시장이 개설된 후 세 번째로 많은 62.9kg이 거래됐다.

한편 국제 금값은 지난 24일 2년 이래 최고점인 온스당 1318달러를 넘기면서 4.7%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1.8% 급등했다. 하지만 국내 금값은 0% 상승하는데 머물러 가격 상승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해 국제가와 스프레드가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통상 KRX금시장 거래가격은 국제가격과 1.2~1.5%의 스프레드를 보인다. /인진수기자

### 금값 2%대 상승 '강세'

#### 1돈 18만 9150원 거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증시가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이 몰리면서 금값이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10시55분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금값은 전날보다 2.06% 오른 5만440원(3.75g 18만9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2kg, 거래대금은 11억 21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금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 24일(4만9420원)보다 1.1% 상승한 16.4g 4만9980원에 거래가 시작됐다.

앞서 금값은 영국의 브렉시트 발표 이후 50.4% 상승하면서 금 시장이 개설된 후 세 번째로 많은 62.9kg이 거래됐다.

한편 국제 금값은 지난 24일 2년 이래 최고점인 온스당 1318달러를 넘기면서 4.7%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1.8% 급등했다. 하지만 국내 금값은 0% 상승하는데 머물러 가격 상승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인해 국제가와 스프레드가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통상 KRX금시장 거래가격은 국제가격과 1.2~1.5%의 스프레드를 보인다. /인진수기자

##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기업 역량개발 연수 장소 각광

### 테마체험관, 컨벤션센터, 기숙사 등 시설 갖춰 연간 8만여명 방문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2011년 개관 이래 기업 역량개발 연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테마체험관 컨벤션센터, 기숙사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개관 이래 현재까지 4만여 명이 다녀갔고 연간 약 8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에서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현 스

트레스 관리 및 감정 힐링, 자금심 고취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취지 아래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총 3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전력 인사담당자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부안에 위치하여 회사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이라는 연수 주제와 적합하여 연수장소로 적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해 있으며, 컨벤션센터의 컨퍼런스룸(300인실)과 세미나·회의실 7개실이 갖춰져 있다.

또 3인실 4인실 온돌방 등 100여 명이 숙박 가능한 시설이 구비,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소화할 수 있다. 시설예약은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063-580-1400)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 사기업 직장인 80% “공무원 전직 생각”

100세 시대에 도래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공무원으로 직업을 전환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사기업 재직 직장인 1,224명을 대상으로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으로 직업을 전환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무려 80.1%가 “있다”라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85%)이 남성(77.5%)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공무원으로 직업을 전환하려는 이유로는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있어서’(69.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연금 등 노후보장이 되어서(52.8%), ‘오래 일할 수 있어서’(42.5%), ‘출산 등 경력단절 이후를 대비해서’(17%), 현재 직업이 적성에 안 맞아서(16.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현재 직업이 본인의 적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약간 부합’(53.9%), ‘거의 부합하지 않음’(22.5%), ‘상당히 부합’(16.7%), ‘전혀 부합하지 않음’(6.9%) 순으로 답했다.

재직 직장에 대한 고용 불안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수준’(40.8%)이라는 응답이 거의 없는 수준(15.7%)보다 2배 이상 많은 것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전체 응답자의 23.9%가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는 71.9%(복수응답)가 ‘9급’이라고 밝혔고, 뒤이어 ‘7급’(16.4%), ‘기능직(10급)’(9.2%) 등의 순이었다. 시험 준비는 주로 ‘온라인 강의’(49.3%) 또는 ‘독학’(45.9%)으로 하고 있었다. 이밖에 ‘사설 학원’(1.7%), ‘스터디 그룹’(1%)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월 평균 수험비용은 평균 21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광영기자

## 농어촌공 남원지사, 농지은행 사업 추진

### 58억원 확보 농업인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2016년 농지은행사업비 58억원을 확보해 남원지역 농업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남원지사에 따르면 ▲쌀 전업농과 젊은 2030세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매매 및 임대차 사업비 22억 ▲고령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 1억원과 경영이양직불사업비 7억 원 ▲은퇴 또는 이농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매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

한 농지매매비촉사업 7억원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한 농기경영회생지원사업에 21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박재근 지사장은 “쌀전업농과 2030세대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령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많은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주민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063-620-200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